

제42회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

-사공 목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출장자: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사공 목
2. 출장지: 일본 오카야마시
3. 출장기간: 2010. 4. 14 - 17
4. 출장목적: 제42회 한일 경제인회의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

5. <출장 내용>

□ 주요 출장 일정

- * 4. 14(수): 인천공항 → 오카야마 공항
- * 4. 15(목): 한일경제인회의 참석
- * 4. 16(금): 한일경제인회의 참석

* 4. 17(토): 오카야마공항 → 인천공항

□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내용

- 한일경제인회의는 ①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, ② 무역·투자, 산업, 기술협력 등 경제교류 촉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, ③ 무역확대·투자확대·공동연구개발·산업경쟁력 강화 등 한일간 경제협력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을 번갈아가면서 매년 개최

- 한일 경제인 300명 참가

- 오카야마현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는 첫째날에 양측의 개회사, 축사, 기조연설, 신산업무역회의 관련 논의 사항 및 건의사항이 제시되었고, 둘째날에 제1세션(동북아경제통합과 한일협력), 2세션(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)과 관련하여 진지한 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있었음.

< 프로그램 >

■ 4월 15일(목)

<p>개 회 사 15:00 ~ 15:15</p>	<p>조석래 단장 (한일경제협회 회장)</p>	<p>飯島 英胤(이이지마 히데타네) 단장 (일한경제협회 회장)</p>
<p>내빈축사 15:15 ~ 15:25</p>	<p>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(주일 공사가 대독)</p>	<p>石井 正弘(이시이 마사히로) 오카야마현 지사</p>
<p>기조연설 15:45 ~ 16:45</p>	<p>이흥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/전 국무총리</p>	<p>小宮山 宏(코미야마 히로시)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 /동경대학총장 고문(전 총장)</p>
<p>보고.제안 16:45 ~ 18:20</p>	<p>양측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·제안(인재교류/부품소재·무역투자)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</p>	
<p>리 셉 션 19:00 ~ 20:30</p>	<p>환영리셉션 (양국 공동 주최)</p>	

■ 4월 16일(금)

<p>제 1 세션 09:00 ~ 11:35</p>	<p>□동아시아 경제연대(공동체)와 한일 관계□</p>	
	<p>* 사회 : 深川由起子(후카가와 유키코)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</p>	
	<p>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: 「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방향 과 시사점」</p> <p>이수철 삼성물산(주) 자문역 : 「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방안과 역할」</p>	<p>河合 正弘(카와이 마사히로)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: 『東아시아 經濟連帶와 韓日經濟協力』</p> <p>上野 健次(우에노 켄지) 도레이(주)이사 국제부문장: 『東아시아 經濟連繫(共同體)와 韓日關係』-도레이의 사례를 중심으로</p>
<p>오찬회 11:40 ~ 13:20</p>	<p>오찬회 및 공동성명(안) 심의회</p>	
<p>제 2 세션 13:30 ~ 15:40</p>	<p>□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와 전망□</p>	
	<p>*사회 : 小此木 政夫(오코노기 마사오)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</p>	
	<p>유연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: 「코펜하겐 氣候變化總會의 示唆點 : 綠色成長」</p> <p>최태희(한국전력공사 처장) : 「綠色成長을 위한 Smart Grid」</p>	<p>足達 英一郎(아다치 에이이치로) (주)일본종합연구소創發戰略센터/ESG리서치센터장 : 「금후의 환경경영과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·전망」</p> <p>一木 修(유키 오사무) (주)자원종합시스템 사장: 「태양전지산업의 최신동향 과 정책동향」</p>
<p>폐회식 16:00 ~ 16:20</p>	<p>공동성명 채택, 폐회인사</p>	

- 종래의 회의와는 달리 구체적인 제언을 하는 문제해결형 회의를 지향하였다는 점과, 한국측이 종래의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한국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항임.
- 그러나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관계로 이 분야의 논의는 다소 탐색적인 단계에 머물렀음.
- 한일 FTA에 대해서는 한.일 양국의 온도차가 상당히 존재하였고,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일FTA에 대한 여론의 지지 획득을 위한 「이익의 균형」 달성을 위하여 양측 특히 일본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.
-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, 스마트 그리드 등 한일 양국의 경쟁 실태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